

일본 LCD 소재기업 한국투자 주목

KOTRA, Hoya · Hitachi 등 16사 한국방문 ... 투자환경 · 공장부지 실사

Hoya, Hitachi metal 등 일본기업들이 국내 투자환경을 살피고 공장설립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방한한 일본기업 16사 중 7사가 LCD 및 PDP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기업인 점은 한국이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강국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KOTRA(대표 오영교)에 따르면, TFT-LCD용 포토마스크 제조기업 Hoya, LCD용 타겟 제조기업 Hitachi금속, 반도체용 검사장비 생산기업 Tokyo Cathode 등 일본 유수의 부품소재기업 16사가 국내 투자환경과 한국 내 공장설립 후보지역에 대한 직접실사를 위해 4월20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방문 기간 중 국내의 투자환경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 노사관계 현황 및 기진출한 일본기업의 투자진출 성공사례 등에 대한 제반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각사가 한국 내 공장설립 후보지로 꼽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투자여건과 산업기반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해당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적게는 100만달러에서 많게는 3억달러까지 총 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에 공장설립 계획을 가진 LCD 부품기업 NH Techno는 경기도 안산과 현곡, 대전 등을 방문해 입주조건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반도체와 LCD용 검사장비를 생산하는 Tokyo Cathode는 구미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 LCD용 타겟재를 제조하는 Nikko Materials은 충북 오송과 오창단지를 방문해 투자환경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기구인 Invest KOREA는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한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금지원 제도(Cash Grant) 등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제도와 국내 노사관계 현황과 전망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22>